

지자체와 대학의 융합적 접근에 의한 지역발전 연구 -지역문화행사를 통한 청주시와 청주대학교의 융합사례를 중심으로-

박중원¹, 이기훈², 김준용^{3*}

¹국민대학교 도자공예학과 교수, ²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석사과정,

³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f Regional Culture related Events -Analysis focusing on Integrated Case Studies of Cheongju City and Cheongju University-

Jung-won Park¹, Ki-Hoon Lee², Joon-Yong Kim^{3*}

¹Professor, Department of Ceramics, Kookmin University,

²MFA Student, Department of Craft Design, Cheongju University,

³Professor, Department of Craft Design, Cheo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과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이러한 사례로 세계적 공예행사인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주관하고 있는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간의 연계 프로그램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정체성(locality)을 담고 있는 공예를 이용해 세계적 지역행사로 발전시킨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지역 문화행사로서의 가치는 분명하다. 또한 청주에 유일한 공예교육기관인 청주대학교와의 융합은 대학과 지역간 연계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행사와 지역 소재 대학 간의 융합사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교육에서 지역사회와의 창의적 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단순 교류 차원을 넘어 지역과 대학 간의 심도 깊은 연계를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 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의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융합, 공예, 지역문화행사, 청주공예비엔날레, 문화예술전문인력

Abstract The study looks into the prospect of expanding interdisciplinary education by examining case studies related to the subject activating economy and understanding the nature of cultural potential of different regions around Korea. The objective is to integrate regional societal for co-existence of cultural events with university being the educational entity for development. The study analyzes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craft event known as th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founded in 1999. For twenty years the Cheongju Industry Cultural Promotion Foundation has organized the Cheongju Craft Biennale and the study researches on the collaborative aspect between the foundation and Cheongju University's Department of Craft and Design. The value of the event is predominant and the locality has clearly been shown.

Key Words : Convergence, Craft Regional Culture Event, Cheongju Craft Biennale, Professionals in Arts and Culture

*This research was partially supported by the Cheongju University Research Scholarship Grants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Joon-Yong Kim(gaffer1@naver.com)

Received November 27, 2020

Revised December 16, 2020

Accepted February 20,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995년 선거를 통해 온전한 지방자치제 실행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종류의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발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1].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열악한 자원의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지역의 인재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지역 소재 대학과의 지식창출 및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문화행사의 한 축으로서 지식창출의 주체인 지역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발전가능성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가 경제적 이익 추구에 집중되어 있어 지자체와 대학 간의 융합을 통한 지역문화행사의 발전현상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공예를 주제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지역 문화행사와 지역 소재 대학 간의 융합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과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이러한 사례로 세계적 공예행사인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주관하고 있는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간의 연계 프로그램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정체성(locality)을 담고 있는 공예를 이용해 세계적 지역행사로 발전시킨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지역 문화행사로서의 가치는 분명하다. 또한 청주에 유일한 공예교육기관인 청주대학교와의 융합은 대학과 지역간 연계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행사와 지역 소재 대학 간의 융합사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교육에서 지역사회와의 창의적 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단순 교류 차원을 넘어 지역과 대학 간의 심도 깊은 연계를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 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의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역행사와 지역 소재 대학 간의 융합사례를 통해 새로운 연계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에서의 융합은 학제 간의 결합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선순환 구조의 발전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와 청주대학교의 공예를 주제로 한 융합 프로그램의 배경, 의도, 과정, 효과 등을 사례연구의 관점에서 소개한다. 분석대상인 융합 프로그램의 내용 연구는 해당 프로그램의 보고서, 국내외 문헌, 공식문건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고찰한다. 청주시(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와 청주대학교(공예디자인학과)의 융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행사와 지역 소재 대학 간 융합의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유추한다.

2장에서는 지역문화행사를 위한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간 융합의 배경을 사회·문화적, 교육적으로 구분해 문헌적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 구체적 배경을 소개한다.

3장은 청주시(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와 청주대학교(공예디자인학과) 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 및 과정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연계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다양한 연계를 위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지역문화행사를 통한 청주시와 청주대 간의 융합적 접근의 배경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역 소재 대학의 역할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과 활성화를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사례분석연구이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행사와 지역 소재 대학 학과 간의 협력을 위한 배경을 분석한다. 첫째, 지역 대학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지역문화행사에 대학이 교육적인 면에서 어떠한 역할이 가능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1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기반 사회에서 문화발전은 사회발전의 초석이고, 지역문화의 발전은 국가 전체의 문화발전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2]. 지역의 문화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독특한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목적으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행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3]. 다양한 지역문화행사들이 비엔날레, 축제, 문화제, 예술제 등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다[4]. 또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Table 1. 2019 Local Event in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gion	Number	Region	Number
Seoul	93	Gangwon	68
Busan	44	Chung-buk	49
Daegu	25	Chung-nam	92
Incheon	32	Jeollabuk	50
Gwangju	8	Jeollanam	107
Daejeon	15	Gyeong-buk	68
Ulsan	20	Gyeong-nam	66
Sejong	2	Jeju	40
Gyeonggi	105	Total	884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한 지역축제 개최 현황에 따르면 884개로 2년 전인 2017년 733개에서 151개가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행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던 문화행사를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문화행사로 추진해 지역만의 특별한 문화 창출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적 욕구 충족시킨다. 둘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의 근간이 기술, 지식, 그리고 문화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문화산업시대’, ‘문화의 세기’라는 명제 아래 각 지역적 특성이 담겨 있는 문화산업을 발생시켰다[5]. 셋째,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수 있다.”라는 명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본 및 문화의 수도권 집중으로 이외 지역의 ‘지방소멸과 문화의 위기’라는 이중고(二重苦) 극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시작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공예의 도시’로 알려진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문화행사와 청주대학교 간 연계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4년 청주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탄생한 청주는 85

만의 인구(2019년 기준)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이다. 예부터 청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도시이자, 유구한 역사와 현대의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계적인 문화도시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주시는 지역격차나 소득격차, 연령이나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시민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접근의 다양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6]. 국제 규모의 청주공예비엔날레,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젓가락페스티벌, 청원생명축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청주야행 등 사계절 행사를 통해 지역의 특징적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7].



Fig. 1. Region Cultural Events in Cheongju-si

청주시는 문화의 양대 축인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두 분야에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다. 지역 문화사업에 역점을 두기 시작한 이후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정 문화도시로 2019년 12월에 지정되었다[8]. 청주시의 30여 개의 다양한 문화행사는 청주시가 설립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7개의 팀(지역문화팀, 시민예술팀, 문화산업 1팀, 문화산업 2팀, 공예진흥팀, 경영지원팀, 공간운영팀)에 의해 기획 및 운영되고 있다[9]. 재단은 지역문화의 보존과 창작의 마중물이 되는 지원 방법을 다각화하고, 지역민에게는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주시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이는 지역문화 소멸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대학인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와의 다양한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대학과의 연계는 단순히 행사 참여의 범주를 넘어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창작 인력뿐만 아니라 문화매개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은 중요하다.

2.2 교육적 배경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회적 변화는 모든 영역에 걸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는 국제화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무한경쟁과 개방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와중에 세방화(glocalization)[10]의 부각으로 인한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이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11]. 2006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세계화의 급속한 약진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라는 전 지구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2].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실황과 여건에 부합하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대학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사회와 별개의 존재가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은 모두의 발전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입학정원의 축소로 직결되는 이 현상은 지방 소재 대학에 위기로 다가왔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학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대학 움직임의 가장 큰 변화는 내부적으로 대학 자체의 경쟁력 향상과 외부적으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를 통한 상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은 이제 인재의 공급처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공존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즉, 대학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기술과 지식의 축적, 창의적 인재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동력(動力)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지역사회의 현안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하고,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지속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행사에서의 역할을 위한 청주대학교의 교육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Fig. 2. Craft & Design courses of College of Arts, Cheongju University

청주대학교는 예술대학 내에 디자인·조형학부가 개설되어 있으며 학부에는 공예디자인학과를 포함한 6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자, 금속, 유리 3개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있는 공예디자인학과는 공예적 능력과 예술적 소양의 함양(涵養)을 위한 융합적 교육과정을 통해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비엔날레를 통해 공예도시로 알려진 청주시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공예 관련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예디자인학과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을 위해 50여 개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습득한 지식을 지역문화행사에서 체험을 통해 실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는 청주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지역문화행사에서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간의 융합사례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에서 청주시 산하 문화산업진흥재단과 연계하고 있는 사업 중 대표적인 3개의 프로그램을(도슨트 프로그램, 젓가락페스티벌, 청주공예페어) 사례를 발췌해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 참여의 차원을 넘어 공예디자인학과 교육과정에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현장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을 시도하고 있다. 세 개의 프로그램은 첫째, 전시 관련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는 ‘도슨트 프로그램’, 둘째, 청주시만의 독특한 전시기획인 ‘젓가락페스티벌’, 마지막으로 전공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청주공예페어’이다.

3.1 도슨트 프로그램

‘가르치다’라는 의미인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용어인 도슨트(docent)는 지식을 갖춘 안내인으로 오늘날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전시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며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995년 시작되었다[13].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 도슨트 프로그램은 2009년 제6회 비엔날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엔날레 운영인력수급의 경우 1회(1999)부터 4회(2005)까지는 지역대학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 1~3회까지는 직접 모집공고를 내었고, 4회에는 운영실행업체를 고용하여 인력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도슨트 프로그램은 원활하지 못한 인력수급과 사전교육 미흡, 그리고 지원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원래의 목적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5회 비엔날레(2007)에서는 충청대학교의 학교기업인 엔컴패스와의 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도슨트 인력확보에 주력하였다. 이는 2009년에 개최된 제6회 비엔날레로 이어졌다. 교육전문가인 에듀케이터를 고용해 전시활동지를 개발하고, 일반인, 공예전공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 이전 비엔날레와 다른 도슨트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비엔날레의 교육·문화의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비엔날레와 같은 대규모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전시에서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었다[14].

도슨트 프로그램은 전시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관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시관람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도슨트 수요 요구에 맞추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2013년 제8회 비엔날레에서부터 지역대학인 청주대학교와 전략적 업무제휴(MOU)를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슨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Table 2

Table 2. 2013 Docent Educational Program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Date	Lecturer	Programs
2013 07.01	Kim, Noam Culture Station Seoul 284	•Culture and Arts Planning -Exhibition, Festival, Public Arts planning case
2013 07.02	Ryu, Jiye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Exhibition planning practice - ‘Geumjiogyeb’ ‘Yanagi Muneyosshji’ Study of Exhibition

2013 07.03	Kim, Mikyung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actice -Museum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013 07.04	Choi, Hyekyung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Exhibition Docent Practice -Docent's Role i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공예디자인학과 3, 4학년 재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도슨트 기본소양 교육에 준하는 ‘문화예술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론 및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예디자인학과 재학생과 대학원생 총 41명이 지원하였으며, 필기시험과 기획서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쳐 총 20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교과과정 중 도슨트에 관한 이론과 현장실습을 배우는 강좌의 개설을 통해 도슨트 프로그램을 학습하였다. 이는 도슨트 기본소양 교육 22시간, 행사현장실습 12시간, 문화역서술 284 교육프로그램 10시간, 도슨트 심화교육 25시간과 현장교육 20시간, 도슨트 스터디 20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엔날레 현장실습 240시간을 통해 전공 6학점을 인정받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Fig. 3. Docent Educational Program for 2019 Cheongju Craft Biennale

윙스프레드(1994)는 지식과 기능의 습득 및 적용, 정보를 수집, 분류하여 해결하는 능력 등이 대학 졸업 후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자격이라고 제시했다[15]. 이러한 체험형 학습을 통해 지역 대학의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진로 탐색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도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과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2013년 제8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적 시행의 결과를 통해 전문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상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주권역 내의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했다[16]. 그러나 격년으로 개최되는 비엔날레의 특성상 도슨트만을 위해 지속적인

로 강좌를 개설하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대학에만 집중될 경우 지역내에 균형적인 안배가 불가능하다. 비엔날레라는 대규모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다양하고 균형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2019년 제11회 비엔날레에서는 전문 도슨트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슨트 모집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청주대학교는 평생교육원을 통한 공예 관련 강좌 개설 및 계절학기 강좌를 개설해 지역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지역대학의 발전 및 지역 내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었다.

3.2 젓가락 페스티벌

2015년 청주시는 한국, 중국, 일본 문화장관 회의를 통해 중국의 칭다오, 일본의 니가타와 함께 한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청주시는 동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 중 하나인 젓가락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6년 청주시는 제1회 젓가락 페스티벌을 청주 첨단산업단지에서 개최하였다. 젓가락 페스티벌은 동아시아의 공통 문화원형인 젓가락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젓가락 문화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선보임으로써 청주를 젓가락의 대표 도시로 만들려는 기획으로 개최되었다.

Table 3. Collaboration between Cheongju University and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for Chopsticks Festival

Date	Title	Activities
2017. 11. 10-19	Chopsticks Festival	Special Session<Art, Chopsticks> Cheongju Univ. Chopstick Cultural Goods
2016. 11. 10-27	Chopsticks Festival	Cheongju Univ. Chopstick Cultural Goods Metal, Ottchil, Ceramics 10 sets each, Glassware 20 sets
		Chopsticks Cultural experience program Chopsticks & Fun: Making Chopsticks
2018. 9. 8-16	Chopsticks Festival	Cheongju Univ. Chopstick Exhibition, Museum of Korean Craft
2018. 10. 10-11. 9	International Exhibition	Korean Cultural Centre AU "Feast of K-Chopsticks"
2019. 6. 11-8. 11	International Exhibition	Korean Cultural Centre Republic of Kazakhstan "K-Chopsticks : Connection"
2019. 9. 20-9. 22	Chopsticks Festival	Cheongju Univ. Chopstick Cultural Goods Chopstick Cultural Goods 21 Sets
		Chopsticks Cultural experience program Cheongju Univ. 'All that Chopsticks' & Glass experience program
2020. 2. 27-8. 28	International Exhibition	Korean Cultural Centre Canada, "Feast of K-Chopsticks"

젓가락 문화전, 유물 전시, 시민참여 체험행사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젓가락 문화의 중심지 청주를 표방하였다. 또한, 젓가락에 관한 학술대회와 지역작가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젓가락 문화를 활용한 상품개발을 시도하였다.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에서는 젓가락 페스티벌에 3회 동안 참여해 젓가락을 주제로 문화상품 제작 및 전시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공예디자인학과에서는 행사에 적합한 이론 및 실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본 행사를 위해 공예디자인학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젓가락을 모티브로 한 문화상품 개발을 진행하였다. 초기 기획부터 최종 결과물까지 창작과정 중에서 아카데미 학습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재단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익히기 어려운 실무 진행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젓가락 페스티벌 문화상품개발은 공예디자인학과 캡스톤 수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총4개 분야(도자, 금속, 유리, 옷칠)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아름다움(美)과 실용성(用)을 겸비한 상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상품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전시에 참여하였다.



Fig. 4. Major of Craft Design, Cheongju University on Chopsticks Festival

젓가락 페스티벌을 통해 진행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공예디자인학과와의 융합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재양성의 보고로서 지역대학의 역할을 경험했으며, 대학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는 지역사회와 대학간의 올바른 융합프로그램 운영사례로 볼 수 있다.

3.3 청주공예페어

청주시는 청주를 공예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해에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을 격년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동안 관련 인력 활

용과 공예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엔날레의 열기를 이어 지역의 작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우수 상품을 개발하며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과 브랜드화를 시도한 행사이다[17]. 이러한 노력은 공예문화상품의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예시장을 형성해 공예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2014년 ‘청주공예장터’라는 명칭의 페어를 격년제로 청주 옛 연초제조창에서 진행하였다.

‘진화하는 공예, 조화의 공예’라는 제목으로 1999년 개최된 제1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는 ‘지역공예산업존’과 ‘산업공예존’이 설치되었다. 각각의 존에는 19개 부스(작가79명)와 36개 부스(작가82명)가 참여하였다[18]. 지역작가를 중심으로 전국의 작가들을 초대하여 장터를 활성화하였고, 청주대학교와 국민대학교가 참여한 교육존에서 체험부스 운영과 판매를 통해 현장을 체험할 수 있었다. 페어에서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성은 기성작가들에 비해 실무 경험은 부족하지만 학생들만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가능성, 그리고 체험을 통한 봉사라고 할 수 있다.



Fig. 5. Major of Craft Design, Cheongju University on Cheongju Craft Fair

Table 4. Participate of Cheongju University in Cheongju Craft Fair(2011-2019)

Year	Title	Companies	Students
2011	International Craft&Design Fair	201	42
2013	International Art Fair	360	54
2014	International Craft Fair	142	35
2015	International Craft Fair	65	53
2016	International Craft Fair	120	50
2016	Craft Market	30	21
2017	Craft Fair	95	82
2018	Craft Fair	70	45
2019	Craft Fair	91	93

축제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동기부여를 통해 전공에 흥

미를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축제를 통해 그 지역에 속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 보존과 부흥에 참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 볼 수 있다[19].

공예페어의 지역적 가치는 공예시장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 및 문화 교육의 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대학이 제공하는 문화체험의 기회는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이해하고 즐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



Fig. 6. Convergence Education in Creative-based Craft Major of Craft Design, Cheongju University

또한, 청주공예페어에서는 대학의 참여는 실무체험의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의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예가 단순히 창작의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특히 경영분야와의 창의적 연계를 요구했으며, 이는 지자체와 대학간의 융합을 넘어 대학내의 다양한 학문간 융합 시도의 배경을 제시하였다.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전공에서는 경영학부와 함께 공예를 기반으로 창업, 경영, 마케팅이 연계된 수업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공예품 창출을 위한 지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지식도 함께 교육되고 있다. 이러한 창의융합에 기반한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창작의 영역을 넘어 창작물의 가치와 시장 창출에 관한 다각적인 측면의 방법과 과정을 학습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융합공예인으로서 학생들의 발전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청주시가 주최·주관하는 지역문화행사와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간의 지역문화행사를 통한 실무교육의 연계 융합사례 소개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를 제외한 타지역에서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연계 융합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이유

는 지역문화행사와 연관된 대학 내 전공의 부재 혹은 전공의 교과과정이 문화행사와의 연계 진행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지역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과의 교류와 대학과의 산학을 장려하고 있는 국가적 환경에서도 현실은 학사 시스템 부재와 인력 수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부실한 기획과 행사진행, 그리고 경제적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와의 융합은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예라는 매개체를 기반으로 하는 청주시(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와 청주대학교(공예디자인학과) 간의 융합사례는 900여 개가 넘게 개최되고 있는 전국적인 지역문화행사에서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 결과로는 첫째, 청주시가 주관하는 비엔날레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위해 대학은 이론과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둘째, 이를 기반으로 전문 지식과 실행 능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문화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가 참여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향수를 체험하는 기회는 물론 침체되었던 공예에 대한 새로운 관심 유발, 그리고 공예를 통한 지역민들의 자부심으로 이어져 청주지역문화행사의 성공에 큰 뒷받침이 되었다.

지방인구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지역문화행사의 활용은 지방의 경쟁력 약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행사들은 단순히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 수단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자체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지자체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실무형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전공은 이러한 지자체와의 성공적인 융합을 위해 교내 인접학문들과의 융합전공트랙을 운영하며 4개의 분야로 인재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공예크리에이터, 공예큐레이터, 공예머천다이저, 공예에듀케이터로 구분된 교육을 통해 지역문화행사의 전문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전공에서의 융합인재 양성 교육은 첫째, 전문가를 위한 실무지식과 학술지식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심도 있는 지역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며, 둘째, 융합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공예 및 관련분야로의 진로를 확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예문화 전반의 성장기반을 다짐으로서 관련시장의 규모 확대와 공예영역의 지평을 확장하고 공예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를 통해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행사를 통한 지자체와 대학 간의 융합사례로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간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간의 다양한 융합이 시도되길 기대해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개되는 공예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사례가 지역문화행사를 통한 지자체와 대학 간의 다양한 융합방식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간 융합사례를 여러 측면에서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했고,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융합가능성의 확인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특수한 사례에 관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고, 결과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극복되길 기대하며, 현재까지 부족했던 지역문화행사를 통한 지자체와 대학 간의 성공적인 융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REFERENCES

- [1] S. H. Ko. (2001). An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and Financial Impact of Cultural Events by the Local.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10(2), 289-307.
- [2] T. J. Lee & H. R. Kim. (2015). Determinants of Effectiveness on Culture Event of Local Gov't: The Case of the 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11.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17(3), 1-26. UCI : G704-001865.2015.17.3.002
- [3] P. K. Chang. (2000). Local Autonomy and Directions of Regional Festival Policy in Korea. *The Journal of Culture & Tourism Research*, 2(1). 31-53
- [4] S. O. Kim & M. A. Lee. (2017). Analysis of Preferences Toward Local Cultural Event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1(6), 189-199 DOI : 10.21184/jkeia.2017.08.11.6.189
- [5] J. S. Chung. (2006). *A Consideration on Bucheon's Culture Condition according to Local Self-Governing System*.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 [6] H. C. Son. (2017. 12. 20). 2017 10 News of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Buddhism Zen News*.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
- [7] Cheongju-si. (2019.03.21). *Publicity material of Cheongju-si*. <http://ebook.cheongju.go.kr/Viewer/>

- [8] Culture City: Cheongju. (2020,10,25.). *Cheongju*.
<http://www.cjculture.org/home/sub.php?menukey=607>
- [9]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2020. 10. 19). *Introduction of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http://www.cjculture.org/home/sub>.
- [10] J. S. Lee. (2009). *Dictionary of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Goyang: Daeyoung Publishing.
- [11] Y. S. Ki. (2008). A Symbiotic Development Program through Cooperation between Region and University: An Interim Evaluation of the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gram.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2(4), 155-182
 DOI : 10.24210/kapm.2008.22.4.007
- [12] M. H. Yeom. (2018). Critical Reflection on Community Development and the Role of Universiti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6(5), 385-417
 DOI : 10.22553/keas.2018.36.5.385
- [13] Doosanpia. (2020.11.01.). *docent*, Naver
<https://terms.naver.com/entry>.
- [14] M. Y. Je. (2010).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ways to vitalize the exhibition of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Masters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15] J. Y. Nam, (2015). *Educational significance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through a Docent program : the case of ASYAAF SAM program*, Masters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 [16]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Committee, (2013). *Results Report of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2013*, Cheongju: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 [17]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2014). *Results Report of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Fair 2014*, Cheongju: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 [18] K. J. Na, (2000). *Results Report of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Fair 1999* Cheongju: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Committee
- [19] J. H. Park, (2015). *A study o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of local festivals and art education*,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박 중 원(Jung-won Park)

[정회원]



- 2000년 2월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도예전공 (학사)
- 2003년 2월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석사)
- 2009년 6월 : University of Wales Institute, Cardiff, MA Ceramics 졸업
- 2015년 6월 : University of Sunderland, Ph.D. Glass and Ceramics 졸업
- 2019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도자공예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도자, 공예, 전시기획
- E-Mail : pjw9357@kookmin.ac.kr

이 기 훈(Ki-Hoon Lee)

[학생회원]



- 2019년 2월 :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학사)
- 2019년 3월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조형학과 (아트&크래프트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유리공예, 미술
- E-Mail : kasd1658@naver.com

김 준 용(Joon-Yong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국민대학교 공예미술학과 (학사)
- 2000년 8월 : 로체스터 공과대학 유리(석사)
- 2018년 9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공예디자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유리공예, 미술, 교육
- E-Mail : gaffer1@naver.com